"공소장 내용 탄핵사유 충분" "뇌물죄 적시 여부 고심

야권 탄핵안 조율 착수

야권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박 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 다는 공감대 아래 본격적인 탄핵안 문구 조율에 착수했다.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야권 주도의 공 통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각도 로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은 탄핵안에 검찰이 공 소장에 적시한 대통령의 행위만 넣을 것 인지와 '제3자 뇌물죄' 등 공소장에선 빠 진 부분까지 넣을 것인지 사이에서 심사 숙고하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공무 기밀 유출, 기타 범죄 공모 등만 포함할 경우 혐의 입증 시간을 단축해 헌법재판 소 판결을 빨리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반대로 뇌물죄와 향후 특검 · 국정조사 에서 나오는 혐의들까지 넣을 경우 입증 에 더 시간이 걸려 헌재 판결이 늦어질 수 있지만 입증만 되면 인용 판결을 더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 결과 추가 시간 빠듯 檢수사 보며 포함 여부 판단

내주까지 양당 공동안 마련

민주당은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 책조정회의에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 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 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며 스케줄을 못 박은 가운데 탄핵추진실무준비단도 회

의를 열었다.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 과 만나 "공소장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작성할 텐데 지금 내용만으로도 대부분 의 헌법학자가 탄핵사유가 된다고는 한 다"며 "특검이나 국조 결과까지 기다리 면 혐의가 더 나올수 있겠지만 헌재 판결 이 늦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 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은 한번 내면 공소장처럼 중간에 혐의를 추 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며 뇌물죄를 일단 탄핵안에 적시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초안 골격을 만 든 후 오는 28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문구를 가다듬 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28일 오전까지 초안 을 마련하고 당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만들자는 목표를 민주당에 제 안했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선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 다고 판단, 뇌물죄 등에 대해선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을 봐서 포함 여부를 판단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관계자는 "헌재 에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뇌물죄를 추가하는 것은 시간과 입증 여부 등을 두고 신중하 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음 주 공동 탄 핵안이 마련되면 지도부가 시점을 정해 여야4당 · 무소속 공동으로 발의하고, 다 음 달 초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계획이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해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 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 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황총리 대행 맡아도 제한적 권한만 행사할 듯

박대통령 탄핵시 직무범위 동일한 권한 불허 견해 많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경우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 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 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그러다 보니 지난 정부의 사례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에서 총리 등이 대통령의 권한 을 대행한 사례는 모두 네차례 있었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 행의 직무 범위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다수설은 국무총리가 국정 마비를 막 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다. 임명직 공무원 인 국무총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 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 리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 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처럼 중요한 협 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도 없다

두 번째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자 의 업무에 제약이 없는 만큼 대통령의 모 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

대통령 궐위시에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 사할 수 있지만, 사고로 잠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상 유지만을 해 야 한다는 견해와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 핵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고건 전 총리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며 다수설을 따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고,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황 총리가 대통령의 권 한을 대행해도 고전 총리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임종룡 원포인트 인사청문회 열리나

경제사령탑 표류 부담 민주당 반대서 검토로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대해 분 리 대응 방침을 시사, 그동안 표류해온 임 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 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대통령, 총리와는 별도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총리 의 인사청문 절차에 나서자는 입장이었지 만, 민주당은 총리와 경제부총리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박 대통령의 '선(先) 퇴진' 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카드를

접으면서 경제부총리 문제에 대해선 "어 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야 3당 과 상의해 보겠다"며 "현 유일호 체제로 가는 게 탄핵정국에서 맞는지, 아니면 임 종룡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상의해볼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확실성을 줄이 고 예측가능하게 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 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회동에서 임 내정자 문제를 탄핵안이 처리된 이후 에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처럼 민주당의 입 장이 바뀌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가능 성이 커졌다.

이 같은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탄핵 정 국이 본격화, 정국의 유동성이 증폭된 상 황에서 시장과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겠 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 속에서

제1야당으로서 경제사령탑 표류를 방치하 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금융위 원장인 임 내정자는 조선해운업의 부실 구 조조정과 부동산 투기 조장, 가계부채 폭 증의 책임자라는 면에서 내부에서 적임자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경기가 어 려운 상황에서 시장에 안정적 신호를 줘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 원내대표의 이날 발 언에 대해 "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 임 내정자에 대해 부 정적 평가도 적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 인 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야당 의원들의 파 상공세가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노희범 前헌재 연구관 "朴 탄핵안 심판 3~4개월내 가능"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 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 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과 관련,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에 비춰보면 빠르면 3~4개월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가 이날 주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민적 관심에 비춰 집중 심리로 최대 한 신속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며 "뇌물죄 등이 추가 기소될 경우 확실하다"고 진단했 다.

노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

우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내 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을 거국 중립 내각에 맡기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강제소환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고 사료된 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의 취 지가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라고 해석했다.

민주·국민의당 특검후보 적임자 물색 착수

청와대가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서를 국회에 보냄에 따라 야권은 이날부터 특검 후보 압축에 들어갔다. 특히 야권은 이번 주말 특검 후보 탐색에 집중, 다음 주초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후보자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 사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 된다.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 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이 법원 출신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도 문성우(광주) 전 대검차 장, 소병철(순천) 전 대구고검장, 박영관 (신안) 전 제주지검장, 조승식 전 대검 형 사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 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데도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 사와 판사 출신을 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 는 의견과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또 도덕성 시비가 없는 인물이어 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로부터 추천받은 20여명의 후보자 중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역시 호남권 법조인을 위주로 대상자 찾기 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무안출받은 조이무이로~

비행키보마 오래 타는 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팅 무연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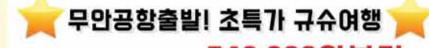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548.000원부터~ 출발일: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품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838.000~ 998.000~









출발일: 2017.1.27~2017.2.5/3박4일(단 4회)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오사카/나라/교토/고베 [고품격]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168,000~ 1,298,000~

[고품격]★오사카/북해도 설국의나라★ 1.498.000~ 광주↔무안 왕복 버스 선착순 40명(2017년 1월 12일까지)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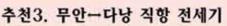




949,000~

1,498,000~

1.548.000~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699.000~ 799,000~ 899.000~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홍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교통편: 항공 및 선택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확을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반동할 수 있습니다.■2억원 명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세취소규정) 및 명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경비업용(단,가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음

[골프]다낭 골프 54홀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